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계곡 만들기, 민간 전문가도 함께 힘 보탠다

-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와 협력해 경기 과천 관문천 불법시설 정비 현장 점검(6.23.)

정부는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본격적인 여름철 행락객 증가와 집중호우 시기를 앞두고 지방정부와 함께 6월 말까지 불법 상행위 시설을 최우선으로 정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지원하는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도 힘을 보탠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최성필 민간 공동위원장(대한적십자사 본부장)과 위원회 소속 건축·가스·전기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오늘(23일)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관문천을 찾아 불법시설 정비 현황을 점검했다.

현장을 찾은 전문가들은 불법시설 철거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며, 집중호우 시 우수 소통과 치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정비 이후에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와 이용객 안전 확보 대책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공공자산인 하천·계곡을 온전히 국민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해 하천·계곡 불법시설을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연재난실 재난자원관리과	책임자	과 장	이선무 (044-205-5270)
		담당자	서기관	김형현 (044-205-5274)
	자연재난실 하천·계곡불법시설정비지원단	책임자	단 장	전병훈 (044-205-6470)
		담당자	전문관	권재천 (044-205-6471)

